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단·복수 해석에 대한 화용적 분석*

조숙희 · 조의연
(신흥대학교 · 동국대학교_서울)

Cho, Sookhee & Cho, Euiyon. 2011. A Pragmatic Account of Singular/plural Interpretations of Korean Bare Nouns. *Linguistic Research* 28(2), 373-38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agmatically account for how a Korean nonplural nominal known as a bare noun without 'tul' is interpreted as singular or plural depending on context. Unlike other approaches to it, we claim that the plural or singular interpretation of a nonplural nominal is not specified in the lexicon: it means it has only a number index in the lexicon. The value of the number index of a bare noun is assigned or determined by various ways. When it is modified by a numeral expression, the numeral expression assigns the value of the number. If not accompanied by any numeral expression, no matter internal or external, then the value is given pragmatically. It has been observed that if the referent(s) of a bare noun is interpreted as being definite, there is a tendency for it to be interpreted as singular. This phenomenon is analyzed to be caused by scalar implicature based on the scalar relation of information: 'tul' plural marker is informationally stronger than the zero marker of a bare noun. On the other hand, the fixed singular interpretation of a bare noun modified by a deictic determiner such as 'i' 'ku' or 'ceo' is also pragmatically accounted for as a short-circuited implicature. (Shinheung College · Dongguk University, Seoul)

Key Words Korean bare nouns, singular, plural interpretation, underspecification hypothesis, scalar, short-circuited implicature, corpus

1. 들어가기

복수표지 ‘-들’이 없는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수에 관한 연구는 중의적 가설에서 단의적 가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백미현(2002), Kwak(2003) 등은 수량 표현 없이 발생하는 ‘학생’ ‘아이’와 같은 무표형 명사는 단수 그리고 복수해석을 허용한다는 중의적 가설에 속한다.¹ 한편 노은주(2008)는 무표형 명사는 어휘적으로

*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발견되는 모든 오류는 필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

1 이들에 따르면,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복수해석은 개체합 해석(sum-reading)이 아닌 집단 해석(group-reading)을 말한다. 이에 대한 반론은 강범모(2007), 노은주(2008)를 참고할 것.

단수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가 하면 강범모(2007)는 무표형 명사의 단수 해석을 추론에 의한 대화 함축으로 보고 있다. 무표형 명사에 관한 이러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 논문에서 우리는 무표형 명사의 수가 단수나 복수나 하는 해석은 어휘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미명시(underspecification) 가설을 제안할 것이다.²

먼저 무표형 명사의 수가 단수와 복수의 해석을 허용한다는 일반적 현상과 한정적 맥락에서 무표형 명사는 단수 해석만을 허용한다는 개별적 현상을 ‘학생’을 중심으로 보기로 하자. 아래의 (1)은 전자에 속하며 (2)는 후자에 속하는 경우이다.

(1) 교사들의 무관심으로 급식권이 꼭 필요한 학생이 추천되지 않기도 한다.³

(2) 그런데 가끔 스के이트 보드를 타며 획 지나갔던 젊은 학생이 다시 돌아와 ‘혹시 난쏘공의 조세희씨가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1)에서 쓰인 ‘학생’은 단수 해석도 가능하지만 복수개체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급식권이 꼭 필요한 속성을 만족시키는 학생의 수가 우리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한 명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는 화자가 특정한 지시대상을 염두에 두고 지시하는 경우에 사용된 (2)의 발화맥락에서 (2)에서 사용된 ‘학생’은 단수해석만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복수표지 ‘-들’ 없이, 그리고 ‘많은’ ‘한 명’과 같은 수량 표현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학생’과 같은 무표형 명사는 단수개체 또는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학생’과 같은 무표형 명사의 수가 중의적이라는 입장은 한국어에서 무표형 명

2 이 논문의 미명사 가설과 유사한 것으로는 Kim(2005)의 무수(numberless) 가설이 있다. Kim의 연구는 형식의미론의 틀에 기초하기 때문에 명사는 기본적으로 개체의 집합을 지시한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무표형 명사의 수가 어휘적으로 무수라고 가정하더라도 단수집합과 복수집합을 다 포함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무표형 명사의 단수 및 복수의 해석은 문맥에서 결정된다는 화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의 지시의미에 관한 한 Kim과 같은 가정을 취하지 않는다. 형식의미론 내에서 무수 가설에 관심있는 독자는 Kim을 참고하기 바람.

아울러 한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서는 수의 정보성을 나타내기 위해 복수형 표지를 거의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복수형 표시 방식과 영어 등 기타 언어와의 비교언어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수 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Kim(2005)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문에서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복수 표지 ‘-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무표형 명사의 단, 복수 해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3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수의 의미에 대한 형식의미론 연구의 대부분은 실제 용례 보다는 직관에 의존한 예시들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곽은주, 진실로(2011)에서도 무표형의 단, 복수의 해석의 예로 ‘나는 학생을 만났다.’가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이 예시는 복수의 해석 보다는 단수개체를 지시하는 한정적 맥락에서 단수해석이 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단, 복수로 각각 해석될 수 있는 실제 용례를 세종 말뭉치에서 인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예시문들은 세종 말뭉치의 용례에서 인용되었다.

사의 복수해석은 어휘 의미에 속하기 때문에 복수표지 ‘-들’과 구조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표성(markedness)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복수의미의 해석에 관한 한, 구조적으로 서로 의존적 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하여 둘 다 무표적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람명사의 복수해석에 관련한 무표형과 복수표지 ‘-들’이 접합된 명사는 서로 자유변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곽은주, 진실로(2011: 18)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명사에 대해서는 단수표현(무표형 명사)과 복수표현(복수표지 ‘-들’명사)이 둘 다 무표적(unmarked)인 형태이(다) (괄호 안의 내용은 본 논문에서 첨가된 부분임).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Kim(2005)과 노은주(2008) 등의 연구에서는 중의성 가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경험적 증거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중의성 가설에 반하는 대표적인 논의는 무표형 명사가 수량사 없이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등과 결합할 때는 단수해석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무표형 명사에 대한 중의성 가설이 타당하다면, (3)의 ‘그 학생’은 단, 복수 두 해석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장래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그 학생은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예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량 표현 없이 무표형 명사가 지시 관형사 ‘이’ ‘그’ 또는 ‘저’와 결합하면 왜 단수해석만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화용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표형 명사의 수에 대한 어휘 의미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을 취할 것이다.

2절에서는 논의의 배경을 공유하기 위하여 먼저 수량사 없는 무표형 명사의 수는 의미적으로 중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한정적 맥락에서 쓰이는 무표형 명사의 예를 중심으로 보여줄 것이다. 3절에서는 무표형 명사의 수의 정보는 어휘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미명시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무표형 명사가 수량사 없이 한정적 맥락에서 사용될 때 발생하는 단수해석은 등급적 함축(scalar implicature)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 4절은 결론에 해당된다.

2. 중의성 가설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의성 가설은 한국어 무표형 명사는 의미적으로 단수와 복수의 개체를 지시할 수 있는 중의적 어휘 표현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이 가설 하에서 무표형 명사 ‘학생’은 ‘순수원자개체’를 지시하는 단수의 의미를 그리고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복수의 의미를 가진 중의적 표현으로 본다. 특히 Kwak과 같이 형식의미론에 기초한 연구에서는 ‘학생’과 같은 무표형 명사의 의미는 순수원자개체를 표시하는 인덱스 ‘a(tom)’의 [학생_a] 그리고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의미는 집단개체를 표시하는 인덱스 ‘g(roup)’를 붙여 [학생_g]로 표기하고 있다.

$$[[\text{학생}_a]] = [[\text{student}_a]] = \{a, b, c\}$$

$$[[\text{학생}_g]] = [[\text{student}_g]] = \{a, b, c, (a+b), (b+c), (a+c), (a+b+c)\}$$

Kwak에서 무표형 명사 ‘학생’이 집단개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먼저 무표형 명사 ‘학생’이 아래와 같이 집단술어 ‘모이다’와 함께 사용되어 복수해석을 갖고 (5)에서와 같이 복수 대용어 ‘그들’에 의해서 지시될 수 있지만 (6)에서와 같이 배분 양화사 ‘각자’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4) 학생이 모였다.

(5) 그들이 축구를 하였다.

(6) #학생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하였다.

그 복수해석이 집단 해석이든 개체합 해석이든 관계없이, 그러나 무표형 명사가 수에 관한 한 중의적이라면 수량사 없는 지시 관형사와 사용될 경우에도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 무표형 명사가 수량사 없이 지시 관형사 ‘이’ ‘그’ 또는 ‘저’와 결합하는 경우 단수해석만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Kim 2005, 노은주 2008).⁴ 다시 말하여, 무표형 명사에 대한 중의성 가설이 타당하다면, 아래에서 다시 인용된 용례에서 ‘그 학생’은 한 명의 특정 학생을 지시하는 단수개체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복수의 개체로 구성된 집단개체를 지시하는 복수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단수해석만이 가능하다.

⁴ Kim(2005)에서는 무표형 명사의 수에 관한 중의성 가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시 관형사’의 경우 외에 범위 해석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Kim(2005: 3장)을 참고하기 바람.

이는 (8)에서 쓰인 ‘이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7) 그러나 장래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그 학생은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 (8) 이번에 미국의 여러 유명 대학들이 이 학생에게 입학을 허가한 것과 무척 대조적이다

한편,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등은 아래와 같이 복수표지 ‘-들’을 수반한 복수명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 (9) 하지만 그 학생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의 학생이라고 볼 때 가능하리다.

지시 관형사 ‘그’가 이와 같이 무표형 명사 그리고 복수표지 ‘-들’ 명사와 함께 공기할 수 있기 때문에, (7)에서 ‘그 학생’이 단수해석만이 가능한 것은 지시 관형사의 제약에서 연유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7)와 (8)에서 무표형 명사가 수량사 없이 지시 관형사와 결합하는 경우, 단수개체의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표형 명사의 수는 어휘적으로 중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지시 관형사가 수반되는 경우 외에도 강범모(2007) 등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무표형이 한정적 맥락에서 쓰이는 “한정적 무표형은 단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강범모 2007: 10). 아래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 (10) 언젠가 아이와 함께 화원 앞을 지날 때였다.
- (11) 하루가 지났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위의 발화는 어떤 특정 맥락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어진 발화만으로도 무표형 명사구 ‘아이’는 한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 무표형 명사 ‘아이’의 외연적 지시대상은 단수개체만을 지시하고 있는 해석을 발생시킨다. 무표형 명사의 수의 의미해석이 어휘의 중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표형 명사 ‘학생’이 단, 복수의 해석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한정적 맥락에서는 단수해석만을 허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다음 절은 이러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3. 무표형 명사의 단·복수 해석에 관한 화용적 설명⁵

이 논문은 위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표형 명사의 어휘적 수 정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미명시 가설에 따르면,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어휘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수에 관한 지표(index)만 존재한다고 본다.⁶ 이 경우 무표형으로 사용된 해당 표현의 단수 또는 복수의 해석은 그 어휘가 함께 쓰인 수량사의 정보, 또는 주어진 맥락을 통해 화자의 추론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필자들은 ‘학생’ ‘아이’ ‘선생’ 등의 무표형 명사의 경우 어휘적으로 수에 관한 지표는 있으나 그것이 단수냐 또는 복수냐 하는 정보는 명시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무표형 명사의 수가 단수냐 복수냐 하는 정보는 발화 단위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먼저 무표형 명사구가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미명시 가설에서는 무표형 명사의 단, 복수의 해석은 이 수량사의 정보에 의해 부여된다. 아래의 예들이 이에 해당된다.

- (12) 모든 학생은 계속해서 인사를 보내고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
- (13) 컴퓨터를 교육에 이용하면 선생 혼자서 40 ~ 50명의 학생을 개인 교사를 하듯 맨투맨으로 가르칠 수 있다.
- (14) 학생 한 명이 토요일 오후에 연구실로 찾아왔다.

(12)-(13)에서는 명사구 성분 내에 있는 복수 수량사 ‘모든’과 ‘40-50명’이 각각 ‘학생’에 미명시화 되어 있는 수의 정보에 복수성을 부여한다. 한편 (14)의 예에서 수량사 ‘한 명’은 ‘학생’을 후치 수식하여 ‘학생’의 수 지표에 단수의 정보를 부여되어 단수 해석을 유발시킨다.

⁵ 강범모(2007: 10)는 무표형 명사가 한정적 맥락에서 단수 해석을 취하는 경향에 대해 이를 ‘양의 격률’을 준수한 대화함축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강범모(2007) 논문의 목적이 복수성과 복수 표지 ‘-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표형 명사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범모와 달리 우리는 이 논문에서 무표형 명사의 단수 해석뿐만 아니라 단, 복수 해석 현상을 모두 화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강범모에서 논의된 한정적 맥락에서의 단수 해석에 대한 화용적 해석을 등급적 함축으로 설명할 것이다. 한 심사자는 강범모의 논의를 별도로 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강범모에서 논의된 대화함축 부분은 한 단락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⁶ 수의 미명시 가설 하에서 무표형 명사는 수에 관한 지표(index)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때 지표의 내용은 [number]이며 이 수에 관한 지표는 [+singular, -singular]의 자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문맥에 의해서 혹은 문법적 장치에 의해서 단수일 경우 [+singular], 복수일 경우 [-singular]로 무표형 명사의 수는 결정 또는 명시된다.

위의 예와 달리, 수량에 관한 정보가 해당 무표형 명사와 함께 발화 내에서 발화되지 않을 경우 청자는 발화 및 언어외적 맥락정보에 기초하여 무표형 명사 지시대상의 수에 관한 추론을 하여 무표형 명사의 수 표지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시화된다. 즉, 해당 명사에 관한 수량 정보가 없는, 그리고 복수표지 ‘-들’이 없는 무표형 명사의 수에 대한 정보는 청자의 화용적 추론을 거쳐 부여된다.⁷ 1절에서 언급된 발화 (1)-(2)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다시 인용하면 아래 (15)-(16)과 같다.

- (15) 교사들의 무관심으로 급식권이 꼭 필요한 학생이 추천되지 않기도 한다.
- (16) 그런데 가끔 스케이트 보드를 타며 휙 지나갔던 젊은 학생이 다시 돌아와 ‘혹시 난쏘공의 조세희씨가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15)에서 ‘학생’은 단수로 해석되든 복수로 해석되든 진리 조건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수개체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속성적 용법 (attributive use)의 한정 명사구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Récanati 1989).⁸ 즉, 무표형 명사 ‘학생’은 어휘적으로 수에 관한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식권이 꼭 필요한’ 속성을 만족시키는 학생의 수는 언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가 단수이냐 복수이냐 하는 것은 청자의 세상 경험지식에 의해 부여된다. 따라서 단수개체 해석도 가능하고 복수개체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지식은 이 경우 ‘급식권이 꼭 필요한 학생’의 수의 대상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개체의 해석을 강하게 선호한다.

한편, (16)의 발화에서 ‘젊은 학생’을 수식하는 관계절 ‘가끔 스케이트 보드를 타며 휙 지나갔던’은 ‘젊은 학생’의 지시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2)의 ‘학생’은 한정적 무표형으로 지시 대상이 한정적이며 구체적이다. 위에 묘사된 언어적 정보 만으로는 “혹시 난쏘공의 조세희씨가 아니냐?”고 질문한 학생이 복수의 학생인지

7 한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총칭 해석이 발생하는 맥락에서는 주제격 표지와 무표형 명사가 함께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i) 공룡은/ ?공룡들은 오래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전영철(2004)은 이러한 총칭 해석을 ‘종류’로 보고 ‘종류’는 복수 개체로 구성된 집단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형식 의미론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총칭 해석이 양화사에 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무표형 명사의 수에 관한 해석은 양화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칭 양화사에 의한 복수 해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후자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

8 이에 대한 논의에 관심있는 독자는 노은주(2008)를 참고 바람.

단수의 학생인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단수 해석만을 허용한다. 이를 미명시 가설에 근거하여 화용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가 한정적 맥락에서 이와 같이 단수의 구체적 지시 대상을 언급할 때, Grice의 대화격률의 관점에서 볼 때,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 ‘대화에서 당신이 기여하는 몫이 진실된 것이 되도록 하시오’라는 격률을 위한 할 의도가 없는 한, 복수표지 ‘-들’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수량 표현 없이 단수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가능성은 수에 관한 지표만 있고 단수인지 복수인지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표형 복수를 사용하는 것 밖에 없다. 동시에 수의 정보에 관한 정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어휘 표지에서 복수표지 ‘-들’은 복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에 관한 표지만 있고 단수 또는 복수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표형보다 더 정보적이다. 따라서 수의 정보성에 관한 등급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어휘구조는 복수표지 ‘-들’이 수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표형보다 더 등급이 높다. 따라서 의미적 강도의 측면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등급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복수표지 ‘-들’, 영(zero) 무표형 Ø>

따라서 화자는 자신이 지시하는 대상이 한정적 단수 개체인 경우, 진리 조건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질의 격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필요 이상으로 정보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오’라는 양(quantity)의 두 번째 격률을 준수하여 무표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즉, 한정적 맥락에서 단수의 개체를 지시하는 경우, 화자의 무표형 명사의 선택은 화용적으로 강요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를 청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정적 맥락에서 화자가 수량 표현을 수반하지 않고 무표형 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화자가 복수표지 ‘-들’을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무표형 명사의 한정적 지시 대상의 수는 단수일 것이라는 등급적 추론을 하게 된다. 즉, 수에 관한 화자의 무표형의 선택은 복수표지 ‘-들’이 아니라는 등급적 추론을 거쳐 청자는 단수의 해석을 지시대상에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가끔 스케이트 보드를 타며 휙 지나갔던 젊은 학생이 다시 돌아와”라는 발화 맥락에서 우리는 화자가 무표형 명사를 선택하는 경우, 복수표지 ‘-들’을 사용할 수 없는 정보적 위치에 있다고 추론하여 ‘젊은 학생’이 지시하는 수는 단수 개체라는 함축을 발생시킨다.

특히 한정적 맥락에서 화자가 단수 개체를 염두에 두고 직시 표현 ‘이’ ‘그’ ‘저’ 등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단수개체를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대상에 대한 정보가 청자와 공유되어 있거나 화자가 청자와 그 지시 대상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고 믿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17) 그러나 장래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그 학생은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따라서 그 대상체가 단수인 경우 반드시 단수의 해석을 허용하는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어휘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가진 복수표지 ‘-들’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명백히 대화 질의 격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복수표지 ‘-들’을 사용할 수 없는 담화상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 대상이 단수로 화자와 청자가 공유되어 있는 직시적인 상황에서는 양의 두 번째 격률에 따라 수량 표현 없이 무표형 명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청자는 직시적 한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무표형 명사 ‘학생’에 단수해석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직시어 기능을 하는 지시 관형사가 사용되는 맥락은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16)의 한정적 상황보다 추론의 함축과정이 화용적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직접적이다.⁹ 즉, 필자들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한 특징의 직시 상황에서 지시대상이 단수개체인 경우, 화자는 무표형을 사용하여 거의 직접적으로 단수의 의미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용법이 고정화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계산 가능하지만 특정 언어형태가 동일한 유형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 때의 함축의미는 직접적으로 해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Morgan (1978)은 이와 같은 함축 현상을 단락적 함축(short-circuited implicature)이라고 부르고 있다.¹⁰

한국어에서 지시 관형사를 수반하여 지시 대상을 직시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⁹ 여기에서의 화용적 해석은 계산 가능성(calculability)을 말한다.

¹⁰ Morgan(1978)은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을 설명하면서 화자가 ‘Can you pass the salt?’를 발화하면서 수행하는 요청의 화행의미는 Grice(1975)의 대화격률을 통해서 계산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산정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식탁에서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용법으로 규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함축의미를 단락적 함축이라고 부른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시 관형사를 수반한 무표형 명사의 단수해석이 단락적 함축이라는 증거는 또한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언어사용에 관한 지식의 단계에 존재하는 단락적 함축은 문법화 현상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지시 관형사와 결합한 무표형 명사의 경우에도 이를 보여준다. Kim(2005)에서 논의되었듯이, 지시 관형사 무표형 명사의 단수해석은 문법적 제약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지시 관형사 무표형은 상호사 ‘서로’의 선행어가 될 수 없지만, 지시 관형사 없는 무표형은 ‘서로’의 선행어로 기능할 수 있다. 아래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 (i) *그 남자는 서로를 미워한다.
(ii) 남자는 서로를 미워한다.

강범모(2007:26) 또한 이러한 지시 관형사에 의한 단수 해석은 “거의 문법화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무표형은 단수 해석과 결합되어 있다는 언어 사용에 관한 지식(speaker's knowledge about the use of language)이 존재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자가 지시 관형사를 사용하는 직시적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지시대상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복수 개체가 아닌 이상, 수량 표현 없이도 단수성을 부여할 수 있는 언어방식은 무표형 밖에 없다는 언어 사용에 관한 지식이 한국어 화자들에게 존재한다. 이러한 언어사용에 관한 지식이 한국어 화자들에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가 복수개체를 지시하는 직시적 상황에서는 무표형 명사는 절대 사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복수표지 '-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아래의 예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예측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 (18) 하지만 그 학생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의 학생이라고
볼 때 가능하리다.

지금까지 이 논문은 무표형 명사는 수에 관한 지표는 갖고 있으나 그 지표의 값이 단수냐 아니면 복수냐 하는 정보는 어휘단위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미명시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 하에, 무표형 명사의 수가 단수냐 복수냐 하는 정보는 해당 명사가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는 이 수량 표현에 의해 결정된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수량 표현 없이 무표형 명사만이 사용되는 경우의 수의 해석은 화용 맥락에 의해 명시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정적 맥락에서의 단수 해석은 등급적 함축이며 지시 관형사와 함께 쓰이는 무표형 명사가 단수 해석만을 갖는 이유를 문법화된 단락적 함축으로 설명하였다.

4. 결론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수에 관한 중의성 가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Kim(2005: 3장) 등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무표형 명사가 왜 한정적 맥락에서는 복수해석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시 관형사를 무표형 명사가 수반하는 직시적 맥락에서는 왜 단수해석만이 발생하는가를 화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의 무표형 명사의 수가 단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하는 정보는 어휘 단위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미명시 가설을 제안하였다. 미명시 가설은 무표형 명사는 수에 대한 표지는 있으나 이 표지의 정보가 단수냐 복수냐의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화 내에서 해당 무표형이 지시하는 대상에 관한 수의 정보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수량 표현에 의해 부여받거나

비언어적 맥락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한정적 맥락에서 수량표현 없는 무표형 명사가 단수개체를 지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수의 등급적 정보성 (복수지표 ‘-들’이 무표형 보다 정보적이다)에 기초하여 등급적 함축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지시 관형사 ‘이’ ‘그’ 등을 수반한 직시적 대화 환경에서, 화자와 청자가 지시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공유되어 있다고 믿는 경우이기 때문에 질의 격률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표형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단수에 대한 함축은 계산 가능하지만 실제로 계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단락적 함축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비록 이 논문에서 무표형의 수는 단수라는 단의적 접근과 이 논문에서 제시한 미명시 가설 중 어느 것이 나은지는 비교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복수성을 나타내는 복수 표지 ‘-들’과의 관련 논의가 미비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놓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07. 복수성과 복수 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47: 3-31.
- 곽은주, 진실로. 2011. 텍스트 차원에서의 복수표현의 영한번역전략. 『번역학 연구』 12(1): 7-34.
- 노은주. 2008. 한국어의 무표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 『담화와 인지』 15(1): 43-62.
-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연구. 『담화와 인지』 9(2): 27-45.
-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전영철.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27-45.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by Peter Cole and Jerry Morgan,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Kim, Chonghyuk. 2005. The Korean plural marker *tul* and its im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 Kwak, Eun-Joo.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phrases in Korean.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언어학) 35: 3-36.
- Morgan, Jerry. 1978. Two kinds of conventions in indirect speech act.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ed. by Peter Cole, 261-80. New York: Academic Press.
- Récana, Francois. 1989. Referential/attributive: a contextual proposal. *Philosophical Studies* 56: 217-249.

조숙희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 1동 117
신흥대학교 영어통역과
E-mail: shcho@shc.ac.kr

조의연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E-mail: choey@dongguk.edu

접수일자: 2011. 07. 15

수정일자: 2011. 08. 05

게재일자: 2011. 08. 10